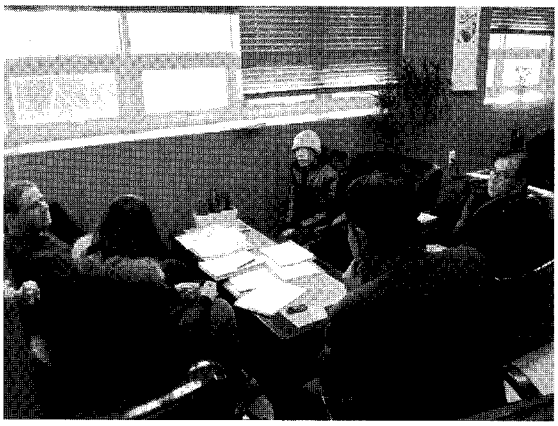
글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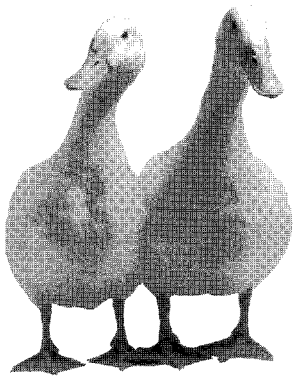
그리므드사 기술담당 로렌트 기술 방문

■방문일 : 2010년 1월 18일 ~ 1월 21일(3박 4일)
■방문처 : 화정축산, 화이트덕, 해바레부화장, 성실농산, (주)주원산오리(본사 및 환산부화장), (주)삼호, (주)다영푸드, (주)모란식품, (주)화인코리아(여주부화장) (방문일정 순)
■방문자 : 그리므드사 로렌트, 한국오리협회 허관행, 김온누리



▲화정축산 방문

그리므드사의 PS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여 각 업체의 수익성 증대를 도모하며, 그리므드와 국내 업체간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양관리법을 개발을 목적으로 기술담당 로렌트 씨(Laurent Bomard)가 방한하였다.



1월 18일부터 4일에 걸쳐 5개의 계열업체 및 4개의 부화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사양관리방법 뿐만 아니라 사양관리상의 문제점과 보안점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10년 이상 그리므드사에서 종자오리를 사양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한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회원사들은 2009년 하반기 물량의 균일도가 이전보다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여전히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그리므드 PS의 육성 및 산란 단계에서 주요 관리사항과 기술 방문시 자주 나왔던 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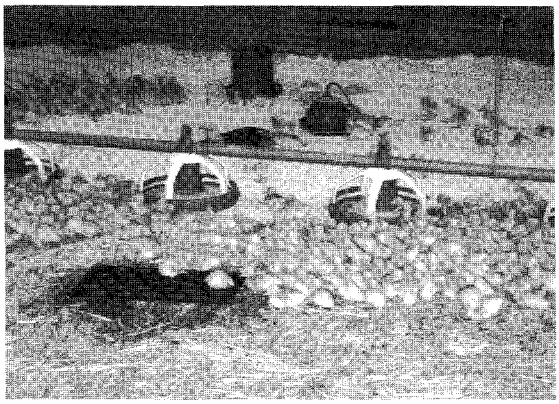
⊙그리므드 PS 육성단계 관리법

1. 준비단계

- 암컷과 수컷은 분리 사육
- 첫 2주간의 온도관리 중요 [표1]
- 급수기를 많이 설치하여 새끼오리들이 물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개방축사에서)점등은 1~3일령에서 24시간 이후 한 시간씩 줄이고 10일령 이후는 17시간으로 고정

【표 1】 최소 권장 온도

일령	주위 온도(℃)	난방기 아래 온도(℃)
1~4일	27	32
5~6일	25	30
7~8일	23	28
9~10일	21	25
11~12일	19	22
13~15일	17	20



2. 사료 급이량 조절

- 21일령부터 암, 수 오리의 체중을 매주 측정하여 표준 체중과 비교
- 과체중인 경우 사료량을 줄이거나, 에너지가와 단백질가가 낮은 사료를 급이
- 17주차에 암, 수 오리 합사(5:1 비율)

【표 2】 권장 사료 급이 프로그램

주령	사료 종류	비고
0~4주	새끼오리 사료	단백질 함량 21~23%
5~10주	육성 전기 사료	단백질 함량 17.5~19%
11~19주	육성 후기 사료	단백질 함량 14.5~16%
20~21주	산란 사료로 교체	단백질 함량 17.5~20%

⊙그리므드 PS 산란단계 관리법

1. 산란 초기시 관리 사항

- 20주령까지는 체중에 따라 사료 급이량 조절
- 20~21주령에 동일한 양의 산란 사료 급이
  :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로 전환시 오리들의 체중이 불기 시작하며 시산(22주령), 그렇지 않은 경우 사료량을 5~10g 정도 추가함
- 23주령에 산란율은 2~3%. 사료는 1일 1회 급이함
- 24~25주령에 산란율은 5%를 상회하며, 일일 6~7시간 사료를 섭취하게 함
  : 주령에 상관없이 산란율이 5%에 도달하면 사료를 6~7시간 급이함
- 산란율이 10%에 도달하면 난중을 측정하고, 난중에 따라 사료량 조절
- 시산 후 5~6주 산란 절정기에 도달
- 33~35주령 이후에는 난중이 안정되어 크게 변하지 않음

▲(주)주원산오리 방문

⊙FAQ

Q. 오리를 사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A. 0~10주령.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목표체중에 맞추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므드는 5주부터 육성 전기 사료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5주 이후에도 새끼오리 사료를 급여할 경우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여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단백질가가 낮은 육성기 사료로 바꿔주어 보다 쉽게 목표체중에 맞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체중인 경우 사료량을 5~10% 줄여 체중 조절을 하고, 목표 체중보다 심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1일 절식을 하는 방법도 괜찮다. 매뉴얼을 따르려고 하기보다 실제 결과를 가지고 사료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1주령부터는 실제 체중이 목표체중보다 상회한다 하더라도 굳이 체중을 줄이려고 하기 보다 목표체중과 평행을 그릴 수 있도록 사료를 급여한다.

Q. 암컷과 수컷 구별법은?

A.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울지 못하며, 꼬리 깃털이 한 올 뻗쳐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므드에서는 암, 수 구별을 위해 수컷의 며느리발톱을 잘라주고 있다.

Q. 17주령 이전에 혼사를 시켜주는 주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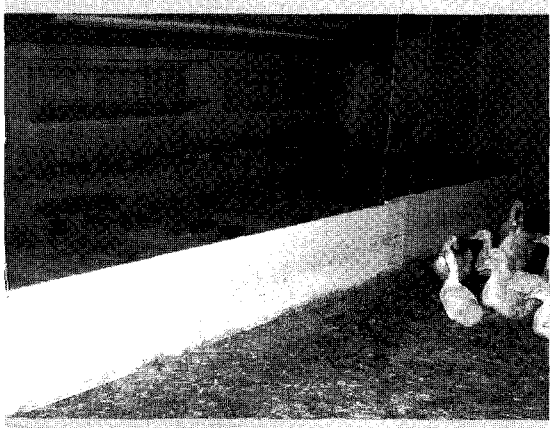
A. 각인오리로써 암컷 우리에 수컷을 넣는 등의 사육방법은 각인 오리의 체중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17주령에 혼사를 시킬 것을 추천한다.

Q. 그리므드 PS의 적정 난중과 산란지수는?

A. 90g을 적정 난중으로 보고 있으며, 70주령까지 270~280개의 알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본다.
50주령 이후에는 알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니 산란율과 난중을 보고 사료급이량을 조절해야 한다.

Q. 산란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A. 산란율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난중이 큰 경우 산란지수가 낮아지므로 난중을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과체중의 오리가 큰 알을 생산하므로 과비가 되지 않도록 체중을 목표치에 맞추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란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펜스

Q. 산란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사양관리법은?

A. 그리므드에서는 산란공간과 생활공간을 펜스로 분리하여 사육하고 있다. 이 펜스는 자동타이머로 작동이 되는데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6시간 열어놓는다. 7시에 사료를 주어 8시 전에 산란공간의 오리들이 생활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산란공간을 분리하니 알이 깨끗하여 따로 세척이 필요 없고, 오염부위만 철수세미로 닦아주고 있다. 세척을 하지 않으니 부화율은 오히려 높아졌으며, 세척시 파란으로 인한 손실도 줄일 수 있었다.

▲깨끗한 깔짚이 깔려있는 난상의 모습

Q. 수송 이후 탈수 관리방법은?

A. 공항에 도착한 오리는 장시간의 운송으로 쉽게 탈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물을 스프레이 분사 후 농장으로 이동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주)모란식품 방문